

# 그녀가 히말라야로 간 까닭은?



## 10년 전 사진 한 장이 인연여행으로



사진작가이자 에세이스트인 이혜선은 어느 날 우연히 들쳐본 책꽂이에서 낡은 주소가 적힌 종이쪽지를 발견한다. 그것은 그가 10년 전, 인도 라다크를 여행하며 만났던 자신을 쫓 빼 닮은 스칼장 아몽(사진)의 주소이다.

라다크는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 자리한 오지다. 국내에선 <오래된 미래>(중앙북스)를 통해 유명해진 곳이기도 하다. 이곳은 척박하고 험한 땅이지만 티베트 불교를 믿는 순박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다.

기억 속 저편에서 잃어버린 추억을 다시 찾는 저자는 당시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선물할 사진을 들고 라다크로 발길을 옮긴다. 자신에게 군장돌마라는 이름을 지어준 노승 톱상 놀보, 축제장에서 한없이 기쁜 표정으로 춤추던 어린 라마승 아집바 소남, 라다크식 막걸리인 '참'에 보릿가루 '참바'를 타서 마시는 걸 한 끼니로 삼는 마부들, 친구의 구멍 난 모자 기워준 것을 보더니 자기 것도 기워 달라며 일부러 구멍을 만들어 내미는 어린 라마승들까지... 저자는 10년 전 그곳을 여행하며 맺은 인연을 따뜻한 기억으로 간직하며 재회를 기원한다.

스칼장 아몽의 집은 점점산중 히말라야의 인도와 파키스탄 국경에 위치한 누바라 밸리 마을이다. <인연 언젠가 만날>은 저자가 인연을 찾아가는 여정과



라다크 마을의 전경.

그들과의 재회가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펼쳐지고 있다. 그만의 서사적 전개는 10년 전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과 어떻게 헤어질 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10년 전 라다크를 여행하며 10루피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줬던 소년이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것을 저자가 알게 된 대목에서는 깊은 슬픔과 인간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한다. 또한 스칼장 아몽과 재회한 저자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비의 동굴 사원을

찾아가 여름 한철을 보내는 과정은 읽는 이로 하여금 마음 치유의 시간을 갖게 한다.

사원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황량하며, 꽃도 사람도 없는 외로운 땅이다. 하지만 척박한 땅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어린 라마승들과 달리, 저자는 외로운 자아와 만나며 험경은 나날을 보낸다. 저자는 그렇게 여름을 보내며 서서히 자신의 마음을 치유해 나간다. 어린 라마승들과 깊은 인간애를 나누면서 극한까지 내몰린 자신을 보듬는다. 저자는 그

렇게 마음을 치유하면서 동굴 사원의 일상을 흥미 경치처럼 섬세하게 관찰하고 이를 사진과 글로 풀어냈다.

책은 여행의 단상만을 토해내는 여느 여행 에세이와는 다르다. 알 수 없는 잠언들로 꽂 채워진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그들과의 인연 속에서 풀어내는 그만의 종교적 성찰이 담겨 있다.

인연 언젠가 만날 | 이혜선 지음 | 품의지도 | 1만4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 시간 도서

### '법화경' 사경은 부처님 지혜 얻는 공덕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 혜조 역 | 운주사 | 6만5000원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들고 직접 쓰거나 남을 시켜서 쓰게 한다면, 그가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지혜로 수량을 헤아려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으니라."

최근 <법화경> 전체 7권 28품이 한문과 한글로 쉽게 따라 쓸 수 있는 사경본으로 발간됐다. 책은 일일이 각 한자의 뜻을 달아 <법화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교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한자펜글씨 교본처럼 활용할 수 있다.

### '선시'도 문학적 평가 가능하다



禪, 언어로 읽다 | 송준영 지음 | 소명출판 | 2만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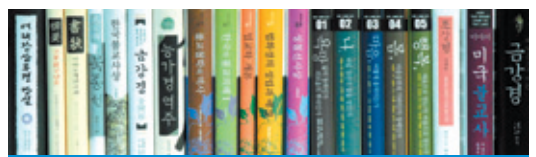
동양에서 1000여 년 동안 격조 높은 문학적 평가받아 온 선시(禪詩)는 서구식 평론의 짜임새나 문학적 수사법을 따르지 않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저자인 송준영은 "서양의 문학 장르에 잘 맞지 않아 보이는 선적인 어록과 수많은 고승들의 법어, 계승들은 어느 것 하나 문학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며, 고전에서 현대로 이어져 온 선시의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저자는 오늘날 선시라 통칭되는 시군(詩群)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단순(單純), 명징(明證), 청량(淸涼) 등으로, 이는 선의 참맛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4	백일법문(상)	성철	장경각
5	행복한 기원	보경	조화로운살
6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7	대장경, 천 년의 지혜를 담은 그릇	오은희	불광출판사
8	마음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백성욱	김영사
9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아디아산티	정신세계사
10	비구, 법정	근승량	동아일보사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 고의로 수행 방해하는 비구도 있었다

## 원영 스님, '율장' 통해 부처님 당시 승가 생활 소개

부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었으며, 어디서 살았을까? <율장>은 바로 이런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을 담고 있는 경전이다. 의식주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어떤 출가자를 받아주고 말 것인지, 어디에는 가고 가면 안 되는지, 어떤 법을 설하고 말 것인지 등 소소한 이야기들이 빼곡히 담겨 있다.

그런데 <율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행자들이 지켜야 할 금지조항들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도대체 수행자들에게 왜 이런 금지조항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걸까?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10여 년 동안 율(律)을 제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도 전역에 '불교'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출가자의 숫자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금기가 왕족, 관료는 물론

이며 군인, 상인, 미성년자, 심지어 살인자까지 출가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러다 보니 곳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불교 교단을 파괴하고 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비구,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비구, 도둑질 하는 비구 등 사회적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부처님은 결국 교단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비구, 비구니가 한 가지씩 잘못을 범했을 때마다 율을 제정했다. <율장>안에는 이렇게 각각의 율이 제정되게 된 연유가 남겨져 있다.

동국대 신학과 외래교수이자,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영 스님은 <율장>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정리해 부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 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출가, 수행, 생활, 사찰, 행사, 계율 총 6장으로 구성된 책은 스님이 출가를 통해 만나게 된 새로운 일상과 수행과 관련된 에피소드 등 오늘날 자신의 삶에 비추어 부처님과 제자들의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다.

책은 결국 "먹고, 입고, 자고, 사람을 만나는 것 모두가 수행의 일환"임을 말하며, 부처님 당시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찾아 2600년 전 당시로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또한 과거의 부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파악함으로써 이 시대에 불교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할 것인지를 상기시키게 한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원영 지음 | 불광출판사 | 1만2800원

이은정 기자

## 깨어남과 깨달음의 차이는 뭘까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 아디아산티 지음 | 정성채 옮김 | 정신세계사 | 1만원

영적인 깨달음은 동굴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명상을 했다가 특별히 선택받은 소수에게만 나타나는 희귀한 현상이 아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영적인 '깨어남'을 경험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묵은 수련을 주관하는 아디아산티는 "깨어남은 여행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한다.

책은 스처가는 깨어남으로부터 머무는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과 이 두 상태 사이의 경험적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 그 사이에 있는 구도자들이 착각과 오해와 자기기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불조정맥 中英韓 3개국어판

## 화두 中英韓 3개국어판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3개국어판 < 불조정맥 >**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계(正脈傳法儀)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년간 수집, 정리하여 기도와 관조 끝에 완성하였다.

**3개국어판 < 화두 >**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평생 동안 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 나누었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3개국어판으로 재출간되어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 발간 예정

도서출판 바로보인 031-534-3373 www.zenparadise.com

##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거제도 총명사 아미타후불탱화

##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호 → 보응당 문성 →  
희응당 상균 → 원만당 석운

## 해동 불교 미술원

010-3219-7180 / 010-3743-5167